

〈 한국경제 보도(9.15일 13:44) 〉

“가짜 통계로尹정부 향해 ‘재정 폭망’ 외친 민주당”에 대한 대응자료 〉

■ 한국경제 보도 내용

1. 관리재정수지 '가짜 통계치' 인용
2. 외평기금이 한은 기금? 팩트도 틀려
3. '국세감면율' 문재인정부 때 역대급

■ 민주당의원 반박 의견

1. 민주당의원에서 발표한 관리재정수지는 '가짜 통계치' 아님

- 민주당의원 보고서의 수치는 2018~2022년의 경우 4월 관리재정수지, 2023년의 경우 6월 관리재정수지
- 2023년의 경우 최근 자료를 갱신하면서 통계 비교에 오류가 발생
- 이에 관리재정수지를 2018-2022년 12월 기준으로 수정하고, 2023년은 6월 기준(상반기 적자 수준) 비교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.6
기존 내용	-14	-39	-57	-40	-38	-83
날짜 기준	18.4월	19.4월	20.4월	21.4월	22.4월	23.6월
수정	-11	-54	-112	-91	-117	-83
날짜 기준	연말	연말	연말	연말	연말	23.6월

2. 외평기금의 실질적인 관리는 ‘한국은행’이 수행

-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운용의 직접 관리 주체이지만, 외환보유액 관리와 관련된 실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형태
- 필요시 두 기관이 협의 (국회예산정책처, 2023.4, 59쪽)
- 실무를 관리하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 외평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

3. 해당 내용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윤석열정부가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 제도를 2년 연속 위반했다는 것

- 윤석열정부가 국세감면제도를 2년 연속 위반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
- 올해 세수결손(상반기 -44조원)을 반영할 경우 국세감면율은 15.3%로 법정한도 14.3%를 초과
-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예산을 전제로 국세감면율 13.9% 추정

/끝.